메트로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Entertainment p/16

세계 뒤흔들 싸이 후속곡 윤곽

Sports p/20

이시영 인천시청 복싱팀 입단

학생 1명당 20만원 '뒷돈거래'

NEWS p/02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

NEWS p/03

'평창의 불꽃' 오늘 타오른다

Entertainment p/14

송승헌·신세경 첫 호흡 맞춘다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제265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7호골 손흥민 명품복근 공개

할아버지는 벌고 손자는 논다

60대 취업 20대 첫 추월… 청년들 스펙쌓기 올인 고용시장 진입 늦어져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창현(가명·73)씨는 5년째 치과기구를 배달하고 있다.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모 대학교 경비실을 거쳐 정년 퇴임 후 두 번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도 받고 계시니 편하게 지내시라"는 자녀들의 요청에도 김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며 여전히 치과병원을 찾아 나선다.

일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다. 여기에 기대여명(잔여수명)이 늘어져 노인들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된 영향도 컸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늘고 있지만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되레 줄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취업자 통계를 낸 1963년 이래 처음으로 일하는 할아버지가 20대 남성 취업자보다 많아졌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남성 취업자 중 60세 이상은 180만2000명으로 2011년(169만5000명)보다 10만7000명(6.3%) 늘었다. 같은 자료에서 20대는 172만3000명으로 전년(173만4000명)보다 오히려 1만1000명(0.6%) 줄었다. 남성 취업자 중 환갑을 넘긴 연령층이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라 20대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난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2년 전체 인구에서 20대 비중은 16.9%였지만 2012년에는 13.6%로 3.3%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60세 이상은 11.9%에서 16.5%로 4.6%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인구 감소(20대 -2만2000명, 30대 -10만6000명)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명, 3만1000명 감소했지만 인구 증감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대 취업자는 2만7000명 감소,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4만6000명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20대가 스펙 쌓기 등을 위해 고용시장 밖으로 벗어난 것도 20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취업 준비자는 5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16.4%) 늘었다.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자들이 20% 이상을 차지했다. 상당수 청년들이 추가 스펙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시장 진출을 늦춘 것으로 볼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기대여명이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비교적 구하기 쉬운 파트타임 등으로 진출하고 있어 통계상 고용 증가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고령층은 생활비 마련 계속 취업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남성이 20대보다 취업자가 많지만 질 좋은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통계적 착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노동시장 고령화가 인구 고령화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 고령화가 노동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미지(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플랜 2015'라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및 고령자 명칭 변경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성기자 kjsyhan@metroseoul.co.kr

나로호 하늘향해 다시 우뚝 … 내일 3차 도전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 발사를 이틀 앞둔 28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우뚝 서 있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를 시도했으나 오작동으로 실패했고 지난해 10월 다시 발사대에 섰지만 부품 이상으로 발사를 연기해야 했다. 기상 이변이 없는 한 나로호는 30일 세번째 비상을 시도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집 안팔려 이사도 못가요" 지난해 인구이동 38년만에 최저

집값 뺨치는 전셋값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 대치동 주상복합아파트 '대우아이빌 카브스' 전용면적 49.6㎡ 규모 아파트의 전세가격(평균)이 2억2500만원으로 매매가(평균)인 2억5500만원보다 불과 3000만원 낮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난 사람이 38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750만7000명으로 1979년(732만4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전년보다는 7.6%(62만 명)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지난해 14.9%로 전년보다 1.3%포인트 감소했으며 1974년(15.3%)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인구이동 감소는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전년보다 26만4000건 감소했는데 감소 1건당 2~3명만 잡아도 전년 대비 감소분(62만명)의 대부분이 설명된다"고 말했다.

중장기 측면에선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동 성향은 결혼과 취업 적령기인 20~30대에서 가장 높은데 이 계층의 인구는 2002년에 견줘 227만 명 줄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인구는 253만 명 늘었다.

산업화·도시화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점도 추세적으로 인구이동률을 낮추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권역별 순이동(전입-전출)은 중부권과 수도권이 전입 초과였지만 영남권과 호남권에선 전출 초과를 보였다.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의 순이동은 3만3000명으로 2011년(3만9000명)에 이어 4대 권역 가운데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기업체의 투자가 몰리는 등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훈기자 psh@

이마트 의혹 더 캐낸다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직원 사찰 등의 의혹과 관련,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를 집중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이마트 지점 24곳을 다음달 15일까지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9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이마트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혐의가 있는 곳은 성역 없이 어디든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민주화의 꽃' 수지 여사 첫 방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지(68) 여사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참석차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이번에 첫 방한하는 수지 여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 뒤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31일에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004년 수상했으나 가택연금으로 받지 못했던 광주인권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버스차고지 방화범 자백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를 자백한 전직 버스기사 윤모씨가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마약 적발사례 급증

합성대마와 프로포폴 등 신종 마약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는 총 50.1kg으로 전년 110.9kg에 비하면 45.4%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합성대마 압수량은 4.7kg으로 전년(1.1kg) 대비 4배 넘게 증가했고,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약 10배 증가한 20만202앰플이 압수됐다.

/정윤아기자 uchiaus@

또 수갑 풀고 도주

절도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도주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모(30)씨는 28일 새벽 3시 15분께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다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동 지구대로 연행됐다.

감시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은 강씨는 손목 고통을 호소하며 수갑을 다른 쪽에 채워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교체 과정에서 강씨의 티셔츠 소매 위로 수갑을 다시 채웠다.

강씨는 체포 4시간 만인 오전 7시 5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옷소매를 당겨 공간을 만든 뒤 손을 뺐을 것으로 추정하고 강씨를 뒤쫓고 있다.

/배동호기자 e-vion@

학생 1명당 20만원 대학·교사 돈거래

포항대 '두당 치기' 적발

고교생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한 속칭 '두당치기'를 받고 대리 전문대학에 학생을 모집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해외여행, 비자금 조성 등에 쓴 포항대 하모(70) 총장을 구속기소하고, 보직교수 6명과 이들로부터 학생 모집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교사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교사 41명도 경북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대 측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지표를 부풀리기로 하고 2007년부터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을 모아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교사는 이를 따라 학생들을 포항대에 지원하게 해 4780만원을 받기도 했다. 6명의 다른 교사들도 각각 1100만원에서부터 2480만원까지 받았다.

/배동호기자

'출신대학란' 없는 이력서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때 신체조건도 표기안해

앞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에 지원할 때는 이력서에 출신 대학이나 키와 몸무게를 적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노동조합 서울청년유니온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표준이력서란 출신 대학과 신체 조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뺀 이력서를 뜻한다.

박원순 시장이 참가한 이번 협약식에서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담은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를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와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실질적 정책 시행의 초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unique@

식당·미용실 모레부터 점포밖 가격표시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들어가기 전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28일 중구 명동 한 음식점 밖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뉴시스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

〈다음달 18일부터 시범시행〉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어도 다른 자 통행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

서울 경찰이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영상 채증을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18일부터 주요 교차로 3500여 곳에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다른 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다음달 18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영상 단속 홍보물을 게시하고 을지로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호, 신설동 신답교차로에서 우선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또 '앞 막힘 제어기법'을 이용한 교통신호 체계도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해 서범 운영 중이다. 이 기법은 전자파 장비를 이용해 교차로 이전 구간의 차량들이 시속 5㎞ 이하로 저속 운행하거나 5초 이상 멈춰 있으면 차량 정체를 뒷편 교차로 신호기를 빨간색으로 바꿔 정체가 해소될 때까지 진입차량을 막는 체계다. /채윤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서울 3500곳서 경찰이 직접 촬영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2가 교차로에서 교통경찰들이 꼬리물기 동영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1790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790명으로 2011년 1402명에 비해 27.6% 증가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면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육아휴직 지원이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지난해 2.8%에 그쳐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윤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58〉 글·그림 박상철

시인 천상병 태어남

천진무구의 시인, 천상병이 1930년 1월 29일 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나의 가난은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섶으로 때론 와서
괴로왔음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씽씽 바람 불어라……

두 아들 병역면제엔 '빙그레' 부동산 투기 의혹엔 '발그레'

김용준 총리지명자 해명 자신감-당혹감 교차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의혹별 해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28일 "신상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주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 의혹에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은 큰아들 현중씨는 고등학교 신장과 체중이 기록된 생활기록부와 징병검사 시 병적기록부 등을 비교해 체중 미달 사실을 제출할 계획이다. 둘째 아들 범중씨는 면제 사유인 질병(통풍)을 입증할 진단서를 과거는 물론 필요한 경우 최근 서류 것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1974년 장남이 8살 때 구입한 경기도 안성 임야 2만여 평, 75년 장 차남이 취득한 서울 서초동 대지 200평 주택 및 91년 신축 건물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 관계자는 "40여 년 전 이야기"라며 자료로 해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날 제기된 1967년 부산간 도기니 사건에 대한 김 지명자의 때늦은 평광 선고 전력 등에 대해서는 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 지명자에 대한 흠결은 없다는 자체 판단 아래 이번주 내 예정된 국무위원 및 청와대 비서실장 일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두번째 경고, 두번째 거부

박 당선인 "국민 뜻 거스르는 것" 반대에도 MB, 오늘 특사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의 연이은 강공 발언의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의 특사 반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박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박 당선인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력 행사가 목적이라면 청와대 '핫라인'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강공 발언을 언론 플레이라고 평가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측근 사면이라는 실리를 얻고 박 당선인은 셀프 사면 반대라는 명분을 얻는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말실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해 신·구 권력의 갈등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 특사 안건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특사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 김용준(왼쪽 오른쪽) 국무총리 지명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인수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황우여(왼쪽 둘째) 대표, 이한구(왼쪽)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정희 통진당 대표 추대

이정희(사진)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9개월여 만에 다시 대표로 나선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면 그동안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조건에서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모시고자 한다"고 추대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달 18~22일 동시당직선거에서 당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대표로 최종 확정된다.

/김종현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편집인	남궁 호
새 편 편 집 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봉 현 호
광고국장 직대	김 완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4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31 등록번호 [illegible]

안철수 앞 '두 갈래 민주당'

'아웃사이더' 규정 보고서 친노-비노 계파갈등 조짐

민주통합당 정책연구원이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규정하고 입당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28일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안철수 현상의 이해와 민주당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안 전 교수가 입당할 경우 "내부 혼란이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안철수 개인을 품는 게 당장 안철수 현상을 얻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자체적인 당 개혁으로 그(안 전 후보)의 지지 세력을 흡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주류 측 의원들은 안 전 후보가 입당할 경우 당권을 잡기 힘들 것으로 본 친노·주류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친노·주류 의원들은 "지금은 안 전 후보와 민주당이 각자 몸집을 키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현기자

구정소식

강서구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 풍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설을 앞둔 29일 화곡동 남부골목시장과 화곡중앙골목시장에서 주민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민속놀이 등을 진행한다.

31일 내발산동 송화골목시장에서는 퀴즈 대회, 투호 놀이, 제기차기 등이 열리며 다음달 1~8일 까치산시장에서는 풍성한 사은품 증정행사와 민속놀이 한마당이 함께 열린다. 문의 02)2600-6367

구로구 스마트 인큐베이터 내달 8일까지 참가자 모집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 인큐베이터' 4기 참가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기업이다. 문의 지역경제과 02)860-2861

Together we can, 하나된 감동 -

특별한 감동의 올림픽, 전세계 지적장애인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PyeongChang 2013

공식홈페이지
www.2013sopoc.org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 기간 : 2013. 1. 29(화) ~ 2. 5(화) / 8일간 • 장소 : 평창(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실내빙상경기장)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

전세계 지적장애인의 국제 스포츠 대회, 스페셜올림픽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 운동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창 스페셜올림픽 후원 방법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298952 • 예금주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 입장권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스페셜패스, 만원의 입장권이 세상을 바꿉니다!

1. 공헌 또는 학생은 자원봉사 4시간 혜택!
2. 만원 한장으로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의 스키리프트, 눈썰매장, 정선레일바이크, 바다열차, 송어축제 등 최대 50%할인받아 총 16만원의 특별한 행복티켓
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
4. 대회기간동안 국내정상급 예술인이 재능기부로 출연하는 마술, 뮤지컬, 콘서트를 관람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anada

The gol
Studen
benefit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ut one student insists she's not in it for the money

A growing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in Toronto are looking for 'sugar daddies' to help pay down their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says the founder of a U.S. website that helps them do just that.

"Some people would say with a guy and he pays to

metro Russia

пугнет доноров

앞으로 헌혈하면 돈 대신 뷔페 씁니다

"헌혈하면 뷔페 식사를 수 있습니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최근 러시아 보건부가 돈 대신 뷔페식사를 헌혈 사례로 제공하는 헌혈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에는 380~450㎖당 250루블(약 8800원)에서 850루블(약 2만900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돈 때문에 병을 숨기고 헌혈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하지만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돈이 필요해 헌혈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는데 사례금 대신 점심을 제공하면 헌혈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metro Ecuador

Biblioteca rodante llega al sur de Quito

버스 개조해 만든 '찾아가는 도서관'

최근 에콰도르에 '찾아가는 도서관'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메트로 키토에 따르면 이 도서관은 버스를 개조해 책을 비치한 것이 특징이다. 악하지 작가 밴플가로 유명한 에우게니오 에스페호의 이름을 붙인 이 도서관은 문학, 시, 역사, 소설 등 기증받은 책으로 꾸며져 있다. 시민단체 '문학의 집'은 올 레크레오(Recreo)쇼핑센터와 합력해 이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학의 집 관계자는 "책을 빌리려면 대여카드가 필요하고 최대 15일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etro HongKong

食物大浪費 夠二億人食

中 버려지는 음식 1년이면 2억인분

중국인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이 남도록 차려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다. 보통 모임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음식이 가득하다.

공금으로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것도 예삿일이다. 성(省)정부들은 공무원들의 접대 지출 제한과 시민 제보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중앙TV(CCTV)는 "전국에서 1년간 낭비하는 음식의 양은 2억 인구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많다"며 중국인의 음식 낭비 문화를 지적했다.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빈곤 인구는 1억2800만 명이다.

베이징의 몇몇 대학 학생식당을 조사한 결과, 식당에서 버려지는 총 음식량은 학생들이 구매하는 음식량의 3분의 1로 나타났다. 전국 전문대 이상 재학생 수가 2860만 명(2009년 말 기준)이므로 대학생들이 매년 버리는 음식은 약 1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 셈이다.

장시대학 농업학부의 리롱바이 교수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약 10%의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10%면 10개 성(省)이 1개 성의 음식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유엔식량기구는 세계에서 매년 낭비되는 음식량이 13억t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음식 중 4분의 1만 남기도 전 세계 9억 명의 기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김가나 조선미기자

캐나다 여대생들, 등록금 쉽게 벌 욕심에 돈 많은 중년男과 거침없이 불륜

'슈거 대디' 뭐가 문젠가요

최근 캐나다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슈거 대디(sugar daddy)'를 찾는 여대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거 대디'는 돈 많은 중년 남자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성관계 대가로 젊은 여자, 일명 '슈거 베이비(sugar baby)'에게 값비싼 선물과 돈을 안겨준다.

미국의 슈거 대디 전용 온라인 웹사이트 '시킹어레인지먼트닷컴(SeekingArrangement.com)' 설립자인 브랜든 웨이드는 "학생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우리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웨이드는 "슈거 대디-슈거 베이비 웹사이트가 온라인 데이트 정보업체와 비슷한 듯하지만 사랑을 주고 받는 인생의 동반자 대신 필요한 걸 주고받는 '관원 파트너'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성적이면서 솔직한 관계지요.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는요. 관계가 무르익으면 슈거 대디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슈거 베이비를 예지중지 보살피고, 또 슈거 베이비는 예쁘고 발랄한 모습으로 보답하죠."

웨이드는 2006년 미국에서 웹사이트를 처음 개설했다. 그는 최근 들어 토론토 지역에서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시킹어레인지먼트닷컴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슈거 베이비 대학' 톱20 중 토론토에 있는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라이어슨 대학이 183명의 슈거 베이비를 새로 모아 1위를 차지했고, 토론토 대학이 156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해 3위에 올랐다.

그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형성된 관계를 매춘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남녀 관계든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3세 토론토대학교 학생은 원하는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좋다며 사이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놨다. "선택의 폭도 넓고 데이트할 때 지갑을 들고 나갈 필요도 없어서 정말 좋아요. 솔직히 남자 대신 여자가 계산하는 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구식이죠." /최미 홍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커닝페이퍼 잘못 베껴 낙제 망신
- "손주 보니 자식욕심" 신생아 훔쳐

해외 지수	
Nikkei (일본)	10824.31 (-102.34)
Hang Seng (홍콩)	23671.88 (+91.45)
Shanghai (중국)	2346.51 (+55.21)
Dow Jones (미국)	13895.98 (+70.65)

EXCHANGE RATE	
달러	1090.00
엔(100)	1201.63
유로	1464.52
위안	175.23

"집값 하락 1~2년 더 지속"

농협경제연구소 전망

주택경기 불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8일 "집값이 1~2년 동안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협연구소는 '국내 주택경기 순환국면 진단' 보고서에서 "주택 버블주기 모형을 적용한 결과 국내 주택경기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 시장의 가계부채 축소가 5년간 진행돼 불황 국면으로 이어졌다"며 "통상 부채 축소기 6~7년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불황이 1~2년 더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두한 금융연구실장은 "주택경기의 불황 국면에서는 대출구조 장기화,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주택 산업의 기초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승기자 [illegible]

지난해 실질 GDP 1100조원 첫 돌파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처음 1100조원을 돌파했다.

28일 한국은행의 2012년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하고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산출한 실질 GDP는 1103조4673억원이다.

이를 통계청 추계 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실질 GDP는 2207만원이다. 2011년에는 2173만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당해 연도의 총 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를 근거로 1인당 국민소득(GNI)을 산출한다. 지난해 명목 GDP와 1인당 GNI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미혼 '재테크의 적' 유흥·쇼핑

남녀 각각 '방해되는 지출' 1위로 꼽아… 돈 모으는 이유는 '결혼자금'

20~30대 미혼 남녀가 재테크 최대의 적으로 각각 '유흥'과 '쇼핑'을 꼽았다.

소셜데이팅업체 이음이 운영하는 싱글생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20~30대 성인 1만1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재테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지출 항목으로 남성은 유흥비(46%)와 집세(15%), 교통비(14%)를 들었고 여성은 쇼핑비(33%), 유흥비·데이트비(20%), 식비(17%), 집세(16%) 순이었다.

지출할 때 가장 아까운 항목은 남성이 유흥비(36%), 교통비(16%), 집세(14%)로 재테크에 방해가 되는 항목과 비슷한 데 반해 여성은 유흥비·데이트비(20%), 집세(19%), 경조사비(16%) 순이었다. 쇼핑비가 아깝다고 답한 여성은 9%였다.

이음 싱글생활연구소 측은 "20~30대 미혼 남성은 유흥비나 데이트 비용이 재테크에 방해되고 아까운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쇼핑비를 재테크에는 방해되지만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 아까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남성의 36% 여성의 43%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마련'을 꼽았다.

결혼자금 마련 외의 재테크 이유로 남성은 주택 마련(25%), 노후대비(20%), 여행·미용·연애(15%), 빚청산(4%) 등을 들었고 여성은 노후 대비(23%), 여행·미용·연애(20%), 주택 마련(10%), 빚 청산(4%) 순이었다.

연봉 대비 재테크 비중은 지난해에는 전혀 못하거나 낮은 비중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새해에는 연봉의 절반 이상을 재테크에 쓸 계획이라는 응답자가 남성 21%, 여성 1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갤노트 데이에서 BMW 받은 행운男 삼성 갤럭시 노트 데이 에서 체험 고객 중 노트데이 앱을 통해 현장 당첨된 안현준(34)씨가 삼성 갤럭시 노트II로 디자인한 그림이 랩핑된 BMW 자동차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노트 데이는 1월 22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진행됐다. /김진성기자

팬택 '6인치 LTE폰' 시장 열었다

삼성·LG보다 앞서 풀HD '베가 넘버6' 공개
뒷면터치 기능 신선… 경쟁군 대비 20만원 싸

최근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기업 퀄컴은 팬택에 2300만 달러(약 240억 원)를 투자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팬택 최대주주가 됐다.

그런데 퀄컴은 팬택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팬택의 수장인 박병엽(사진)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2011년 워크아웃 종료 ▲2009년 퀄컴으로부터 첫 투자 유치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 3위 등의 성과를 냈다.

박 부회장이 이번에는 국내 최초 6인치 스마트폰으로 게임의 룰을 바꿨다. 다음달 초 출시되는 이 제품은 삼성·LG보다 한 단계 앞서 스타트를 끊는다.

게다가 최신 사양을 갖췄음에도 출고가는 84만9000원이다. 경쟁군에 있는 상품 대비 약 20만원 싸다. 저렴한 제품을 빨리 출시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팬택은 28일 국내 최초 풀HD LTE 스마트폰 '베가 넘버6'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쿼드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최고 사양의 화면 패널이라 할 수 있는 내추럴 IPS프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6인치급 화면을 사용해 사실상 태블릿 PC로도 쓸 수 있다. 한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뒷면을 터치해 화면을 전환하거나 전화를 받고 앱을 실행할 수 있는 'V터치'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풀HD 화질로 초당 30프레임(fps) 촬영이 가능한 앞면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뒷면에도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달았다. 카메라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베가 리모트샷' 기능도 추가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V프로텍션'도 탑재했다. 사용자가 원격 제어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분실 후 베가 서비스센터 사이트(www.vegaservice.co.kr)에서 잠금 해제, 데이터 초기화 작업을 할 수 있다.

배터리는 3140mAh(밀리암페어아워)의 대용량이지만 2시간 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고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이다. 두께는 9.9㎜, 무게는 209~210.5g.

팬택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팬택 R&D 센터에서 6인치급 풀HD LTE 스마트폰 '베가 넘버6 풀-HD'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훈기자 sch@metroseoul.co.kr

50대 재벌총수 집값 2191억원

1위 이건희 회장 263억

국내 재계 총수 주택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집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순위 상위 50대 그룹 총수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가격을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모두 219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총수 1인당 평균 43억원이다.

이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 서울 이태원동, 삼성동, 서초동에 모두 3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 이들 주택 공시가격은 총 263억1000만원으로 50대 총수 중 가장 많았다.

이태원동 주택은 토지와 건물 공시가격 합계 118억원으로 재계 총수가 보유한 단일 주택 중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동 주택은 99억6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가격이 높았다.

2위는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으로 이태원동과 한남동에 보유한 단독주택 두 채가 8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과 청담동의 공동주택 가격 합계가 81억1000만원으로 3위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이 73억4000만원으로 4위였다. /박상훈기자

SKT, 기기변경 고객에 27만원 할인

18개월 넘게 단말기 안바꾼 가입자 대상 31일부터 시행

SK텔레콤이 충성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한 단말기를 18개월 이상 사용한 가입자에게 27만원 깎아주는 '착한 기변' 프로그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31일부터 22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텔레콤이 이 기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자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가입비 납부,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멤버십 포인트·결합 상품 할인 소멸 등 불이익을 받지만 '착한기변'을 선택한다면 번호이동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SK텔레콤은 단말기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우량 가입자에게 멀티메시지(MMS)로 'T기변 사은권'을 전송할 계획이다.

공식 매장에서 사은권을 제시하면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팅42(청소년)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27만원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멤버십 VIP 가입자는 5만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박상훈기자

우수중소기업제품 반값 세일

소비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및 농가 지원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큰 SALE'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을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100자 브리핑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는 28일 '라이프 e북'을 론칭하고, 국내 최초로 100페이지 무료 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0페이지를 읽은 후 종이책이나 e북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이비카드는 분실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한 교통전용카드 비토큰(beeTOKEN)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에 서비스 등록 후 분실한 경우 신청만으로 결제 중지,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강진·슈퍼태풍 덮쳐도 초고층 빌딩 '안심'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지진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강한 지진이나 초대형 태풍에 따른 진동과 바람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공법 개발이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SH공사, DRB동일과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복합제진공법인 HY-CALM(Hybrid vibration Controlling Absorbing, and Lessening Measure) 시스템이 소방방재청 방재 신기술 3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HY-CALM 시스템은 지진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되는 감쇄를 이용한 기존 댐퍼공법에 고감쇠고무를 함께 적용해 바람에 의한 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지진에 의해 가해지는 힘을 구조물이 저항하는 데 반해 이번에 신기술로 지정된 HY-CALM 시스템은 하나의 장치로 지진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풍진동까지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고층에서 생활하는 입주민의 거주 편의성과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슈퍼 태풍 등의 위험으로부터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외 초고층 빌딩을 대상으로 이 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러시앤캐시 대출금리 대부업 최초 20%대로

러시앤캐시가 20%대 대출금리를 선보인다. 러시앤캐시는 최고 대출금리를 현행 39%보다 10%포인트 낮은 29%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계의 대출금리가 20%대로 낮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각종 리스크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금리를 20%대로 낮추겠다는 대전제는 성립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부업 법정 상한 금리를 2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최고 대출금리를 낮추자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김지성기자

한복 체험하는 선수들 28일 서울 글로벌문화관광센터에서 열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서울여대 호스트 타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한복 체험을 하고 있다. 호스트 타운(Host Town) 프로그램이란 각국 선수단이 대회 참가 전에 스페셜 올림픽 개최국을 미리 방문해 기관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며 해당 국가의 문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장애인·비장애인 화합 '감동의 8일'

평창스페셜올림픽 오늘 팡파르… 선수단·자원봉사자 1만5000명 우애의 축제

PyeongChang 2013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29일 오후 6시 강원 평창 용평돔에서 역사적인 개막을 알린다.

이번 스페셜 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희망을 나누고, 우애를 다지는 겨울 스포츠 축제로 다음달 5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111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을 포함 자원봉사자 등 총 1만5000여 명이 참여해 가장 특별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게 된다.

개막식은 '드림코러스'를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면서 시작된다. '왕의 남자', '마더' 등의 영화 음악을 통해 잘 알려진 이병우 감독이 총감독을 맡은 이번 개막식은 전 세계인들에게 환상적인 장면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기대된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스노슈잉,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플로어하키 7개 종목 모든 참가 선수에게 메달과 리본을 수여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함께하는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특히 '스페셜랜즈'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선수들을 처음으로 초청해 의미가 더 크다.

이번 대회와 함께 열리는 글로벌 개발 서밋에는 김황식 총리와 나경원 대회 조직위원장,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제레미 헌트 영국 보건부 장관, 심슨 밀러 자메이카 총리,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중국 배우 장쯔이, 미 프로농구(NBA) 스타 디켐베 무톰보 등이 참여한다.

NBA 장신센터 야오밍, 쇼트트랙의 안톤 오노, 양양의 '통합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쇼트트랙 김동성과 마라톤의 이봉주, 레슬링의 김원기 등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김동성이 안톤 오노와 조우하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이외 세계청소년회담과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며 폐막일에는 피겨스타 김연아의 아이스 쇼가 예정돼 있다.

입장권은 1만원권 한 장으로 개·폐막식을 제외한 전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입장권 없어도 문화 행사는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의 스키 리프트, 스키 렌탈, 눈썰매장, 정선 레일바이크, 동해 바다열차, 송어 축제 등 인근 유료 관광시설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적용받는다. 입장권은 조직위원회(www.2013sopoc.org) 배너창이나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하면 된다. /이동호기자 steven@metroseoul.co.kr

스페셜올림픽 빛내는 화제의 두사람

'장애 왕따' 이긴 설원의 공주

크로스컨트리 최아람 다관왕 도전 스타트

크로스컨트리 최아람(14·사진) 선수는 흰 눈밭을 활강하며 장애로 인한 아픔을 극복한다.

크로스컨트리는 스키의 마라톤이라고 불릴만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종목이다.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최 선수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 꾹 묵혀 학교 생활을 참아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은 최 선수가 5학년 때 태백미래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여기서 만난 체육 담당 박영철 교사는 또래보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뛰어난 최 선수를 크로스컨트리의 세계로 인도했다.

최 선수는 운동을 시작할 당시 10분만 달려도 숨이 차올랐지만 매일 20㎞를 달리는 맹훈련 끝에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사전 점검 대회에서는 크로스컨트리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최 선수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인 동생 최영미(12)와 함께 시상식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밝혔다.

가장 아름다운 애국가 열창

뇌 90% 절단 박모세 개막식서 기적의 노래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특별한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29일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를 박모세(21·사진)씨는 선천성 장애로 태어나자마자 대뇌의 70%와 소뇌의 90%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며 유산을 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희망을 걸었다.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도 '모세'라고 지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박씨가 다섯 살 되던 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부모를 따라 용인의 한 교회를 다니던 그가 주기도문을 외고 일곱 살 때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박씨는 2002년부터 장애인 체육 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박씨는 개막식 무대에서 4000여 전 세계 관중들 앞에서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어머니 조영애(49)씨는 "장애를 딛고 애국가를 부를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정윤희기자 unique@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지난 20일 평창군 일원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장에서 일을 썰매를 타며 낭만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한 1만원의 행복

스페셜 패스 1장이면 모든 경기 관람
인근 스키장 할인 등 부가혜택 풍성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관중에게 '스페셜 패스'의 특혈한 기회가 주어진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29일 스페셜올림픽 개막에 맞춰 인근 스키장 등 서비스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 패스를 1만원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정 평창과 강릉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및 겨울 축제는 평창스페셜올림픽의 '특별한 덤'이다.

◆ 커피커피 커피 박물관

약 800㎡ 대지에서 커피농장-박물관-로스팅 하우스-체험관-전문 매장 등 커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농장은 국내 최초로 상업용 커피가 생산되며 박물관은 전 세계의 희귀 커피 관련 소품을 모아놓다. 주소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806-5 문의 070-8838-0077

◆ 대관령 눈꽃축제

초대형 눈 조각 프로젝트, 눈 조각 전시장 볼거리부터 스노래프팅, 썰매 끌기, 이글루 숙박 체험 등 즐길거리, 황태덕장·감자 구워 먹기 등 먹거리가 풍부한 축제로 유명하다.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장소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 문의 033-335-3995

◆ 대관령 황태

영하 30도 이하 혹한에서 건조된 황태는 숙취·공해독·농약독 등을 풀어준다.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단백질 성분을 다량 함유해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 감자떡·옹심이

구황작물 감자는 감자부침, 옹심이, 국수, 떡 등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다. 그중 감자떡은 투명한 검은색에 쫄깃하고 차진 식감으로 인기가 높다. 옹심이는 맛이 구수하고 시원해 속풀이 음식으로 좋다. /이국명기자 grass100@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 현금보다 '건강'

필수영양 꽉 채운 '내몸애(愛) 멀티 비타민&미네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고 가는 덕담 속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건강'이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절 선물을 고르는 기준에도 반영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필수 선물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시중에는 효능과 원료가 다양한 비타민 제품들이 판매 중인데, 최근에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천연 성분이 함유된 비타민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내몸애(愛) 멀티 비타민 & 미네랄 1일 섭취량으로 충분히 충족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1일 권장량

비타민은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필수영양소로, 결핍되면 각종 염증이나 성인병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평소에 과일이나 녹황색 채소를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식품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1일 권장량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네랄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결핍될 경우 골다공증, 빈혈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제품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품의 기능성을 인정한다는 표시다. 이와 함께 우수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통과한 식약청의 GMP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 표시와 광고상의 인증마크인 KHSA가 있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 건조효모 등 천연유래원료 사용

타파웨어 브랜즈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가 출시한 '내몸애(愛) 멀티 비타민 & 미네랄'은 건조 효모에서 유래한 천연원료로 만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다. 10가지 필수 비타민과 4가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하루 섭취량만으로도 1일 비타민 권장량과 미네랄을 충분히 충족시켜준다.

이 제품에는 스트레스 저항력과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두나리엘라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과 아세로라에서 추출한 비타민 C가 함유돼 피로 해소, 항산화, 눈과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셀렌, 아연, 칼슘, 크롬 등 4가지 성분의 미네랄이 포함,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문의 www.tupperware.co.kr (080)023-8811

/김민지기자

더페이스샵 '희망고' 할인·기부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 보습제 등 최대 50% 저렴

지연수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오늘(29일)부터 일주일간 할인행사 '희망고데이'를 개최하고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0년부터 (사)희망의 망고나무와 협약하고 아프리카 난민에 망고나무를 심어주는 사회공헌활동 '희망고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할인행사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음달 4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고객에게 전 품목 30%, 일부 품목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회원 가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망고씨드 실크 보습 아이크림', '스밈 발효원액 아이크림', '미니펫 퍼퓸 핸드크림' 등 건조한 겨울철 꼭 필요한 보습제품 22개는 50% 할인을 적용한다.

겨울철 건조한 눈가 주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망고씨드 실크보습 아이크림'은 사막이나 열대지역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100년이 넘게 사는 강한 생명력의 망고열매 씨앗(망고씨드) 성분을 핵심 원료로 사용했다.

망고씨드에서 추출한 망고씨드 버터는 망고나무의 탁월한 영양 성분을 응축된 형태로 함유해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동시에 공급하고 하루 종일 촉촉함을 지속시켜준다. 특히 파라벤 및 유기색소, 동물성원료 등 7가지 유해물질을 뺀 7무(無) 처방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박지원기자

한라산 눈꽃 트레킹·겨울 캠핑디너·로맨틱 노천스파

따뜻한 제주서 '낭만적인 힐링'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럭셔리한 겨울 휴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제주신라호텔의 '위버 힐링 패키지'가 인기다.

위버 힐링 패키지 투숙객들은 제주신라의 GAO 겨울 레저 프로그램을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의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하며 걷는 '한라산 눈꽃 트레킹', 전문 스노 슈즈를 신고 눈길을 걷는 '스노 슈잉'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 밖에 무농약 재배 감귤 딸기 따기, 노르딕 워킹, 올레길 걷기, 질보라 키즈 아일랜드 캠프 등이 있다.

야외온수풀, 자쿠지, 핀란드 사우나 등으로 꾸민 '윈터 스파존'에서는 쿠바와 브라질 공연팀의 화려한 무대를 감상하며 수영과 스파를 즐길 수 있다.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비치 하우스 입장 고객에게 따뜻한 와인 글루바인을 나눠준다.

2박 이상 투숙 고객에겐 '겨울 캠핑 디너' 또는 '더 파크뷰 디너 뷔페(2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위의 특전이 제공되는 위버 힐링 패키지는 2월 14일까지 선보이며, 가격은 27만~41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특히 아이러브 패키지 이용 고객들에게는 어린이 프로그램 1회

제주신라호텔 '위버 힐링 패키지' 풍성한 특전 GAO 겨울레저·프라이빗 비치 하우스의 와인 등 무료

성인 2인과 어린이 1인 조식, S-CAR 서비스를 제공한다. 맥클라렌의 명품 유모차와 카시트도 무료로 빌려준다. 가격은 31만~43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제주 뮤직 아일 페스티벌

제주신라호텔은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아일 페스티벌'도 내놓는다.

다음달 15~23일(월요일 제외)에 위버힐링 패키지를 이용하면 '제8회 2013 제주 뮤직 아일 페스티벌' 입장권 2장(10만원 상당)이 포함돼 있고 특정 GAO 겨울레저 프로그램 2인 1회, 윈터 스파존과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조식 2인, 월드 와이너리 투어 2인권도 제공된다. 문의 www.shilla.net/jeju•1588-1142

/박지원기자

2013년 3월 17일까지

연·장·확·정!

연이은 매진행렬!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최대 **55%** 할인

1월 29일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티켓 오픈!

NEW 송승환의 어린이난타를 전용관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연장소 예림당 아트홀 (역삼동)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AUCTION YES24.COM 문의 02)738-8289

metro entertainment

덤덤해요 '대세' 수식어

star bag

브라질 한인 이민행사 참석

연기가수 김현중·에일리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이들은 신곡 '눈물샤워'로 음원 차트를 석권한 배치기, 넌버벌 퍼포먼스 그룹 용알스와 함께 다음달 23~25일 상파울루 에스페리아 공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2K13 헬 코리아' 무대에서 공연한다.

'남자가 사랑할 때' 연기호흡

송승헌과 신세경이 MBC 새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촬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확인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스의 여자와 결혼했지만,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남자와 두 남자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7급 공무원' 후속으로 4월 초 방영될 예정이다.

"한때 스타병…정신 못차려"

배우 이준기가 스타병에 빠져 지냈던 과거를 털어놨다.

그는 28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녹화에서 "영화 '왕의 남자'의 흥행 이후 분수에 넘치는 인기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건방진 행동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군 제대 후 예정 결원으로 집에서 혼자 키스 연습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단독공연 1만6000명 열광

JYJ 김재중이 국내 첫 단독 공연을 열고 1만6000여 팬을 불러모았다.

26~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유어, 마이 앤 미인'이라는 이름으로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가 결합된 공연을 개최했다. 그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연출했고, 최근 발표한 솔로 앨범 수록곡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다음달부터 아시아 투어에 돌입한다.

흥행 신호탄 쏜 '7번방의 선물'

류승룡

휴먼 드라마 '7번방의 선물'이 상영 닷새 만에 전국 관객 150만 고지를 돌파하면서 신년 극장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8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일인 23일부터 27일까지 162만5622명을 불러모아 흥행 돌풍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정작 이 영화의 간판인 류승룡(43)은 멋진 출발을 자축하기는커녕 '재기적 명량 회오리 비다'의 지방 촬영으로 걸린 심한 감기몸살 탓에 입 열기도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다 못해 아예 터진 것 같다"며 힘없이 웃었다.

▶ 6세 지능 어른 역할 만만찮아

선 굵은 외모 덕분에 미소적인 카리스마적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던 류승룡에게 유아 살해범의 누명을 뒤집어쓴 여섯 살 지능의 어른을 연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여기에 '쿨한' 정서가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요즘, 남자 연기자라면 다소 꺼려할 만한 신파 느낌의 이야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구석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본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됐던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달리, 대본 분석은 물론이고 줄거리의 흐름과 작품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 등 배우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자신의 의견을 내려 애썼다. "일부 드라마의 바보 캐릭터처럼 주인공을 희화화해서 보여주지 않겠다는 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또 한편의 판타지이므로 저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는 오히려 사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몇몇 대목은 연출자인 이환경 감독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탈진 상태에 이를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결과적으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작업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딸 열연한 갈소원, 또다른 소득

이 영화로 얻은 소득은 딸 예승 역으로 호흡을 맞춘 아역 배우 갈소원이다. 이제 세 살, 여섯 살배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딸 하나가 실제로 생긴 것 같아 흐뭇할 따름이다. "촬영 기간 중 소원이와 부녀처럼 지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이인 주인공을 쉽게 연기할 수 있었죠. 앞으로 시집 갈 때까지 정말 딸처럼 챙기려 합니다. 실은 셋째가 또 아들일까봐 둘로 끝낸 건데,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하하하."

오달수·박원상·김정태·정만식 등 쟁쟁한 신스틸러들과 공연한 것도 짭짤한 재미였다. "선수들답게 누구 하나 튀려 하지 않고 팀워크를 다지는 데만 모두가 집중했다. 스쳐가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속내를 파악할 때의 기쁨은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

▶ 한 계단 한 계단 연기자의 길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흥행 성공으로 '대세', '충무로의 블루칩'이란 별명이 생겼다. 광고도 찍으면서 살림살이도 한결 좋아졌다. 누구는 "'대운'이 들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 같은 수식어와 주위의 부러움이 못내 부담스럽고 마땅치 않다. "과하지 않게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온 과정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솔직히 덤덤해요. 처음 연기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난타'로 해외 공연을 다닐 때 '와! 내가 살다 보니 넌버벌 퍼포먼스로 외국도 가보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또 '박수칠 때 떠나라'와 '거룩한 계보'로 처음 칭찬받을 때도 지금만큼 기분 좋았고요. '대세'란 수식어가 반갑지만은 않아요. 언젠가 내리막길을 타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어떤 닉네임을 붙일지 걱정도 되고요. 관객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미공드락이엔)

AN ORIGINAL PRODUCTION OF VBW VEREINIGTE BÜHNEN WIEN

Book and Lyrics by Michael Kunze, Music and Orchestrations by Sylvester Levay

1.29 (화) 3차 티켓오픈

아카데미 상에 빛나는 거장 히치콕의
로맨틱 스릴러 〈레베카〉 뮤지컬로 탄생!

베일벗은 첫 무대 박수갈채!

스토리 흡입력 ... 파격, '소름 돋는 뮤지컬' -포커스

레미제라블을 압도하는 강력한 다크호스 뮤지컬 '레베카' -중앙일보

무대에서 생성된 강력한 쓰나미가 객석을 강타하는 느낌 -스포츠조선

유준상 | 류정한 | 오만석 | 옥주현 | 신영숙 | 임혜영 | 김보경 외

2013.1.12~2013.3.31 LG아트센터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LG아트센터 02-2005-0114

"병실서 한없이 눈물만…"

'대왕의 꿈 복귀' 최수종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

낙마 사고로 부상을 당한 최수종이 KBS1 대하사극 '대왕의 꿈'에 한 달여 만에 복귀한 소감을 밝혔다.

28일 촬영장에 복귀한 그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병실과 집에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보내준 편지와 메모를 보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좋은 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빨리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잘 마무리할 테니 도와달라"고 밝혔다.

극중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 29대 왕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 역할을 맡은 최수종은 지난해 12월 26일 촬영 중 낙마 사고를 당해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5~10월에도 낙마와 차량 전파 사고를 당하는 등 숱한 악재를 겪었다.

이날 왼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었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게 처음이라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래도 이 정도 부상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긴다"면서 "두 손을 쓸 수 없어 아내인 하희라씨가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혀준다. 촬영 시에도 옷 갈아입을 때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대왕의 꿈'은 최수종이 복귀하는 다음달 2회 방송분부터 아역 분량이 끝나고 성인연기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2막으로 접어든다. 홍수아가 최근 승만(여왕)의 딸 연화 역으로 합류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강남스타일'급 춤 나온다

싸이, 유건형과 막바지 작업…내달 취임식 공연

메가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뒤를 이을 싸이의 신곡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발매 시기, 연무 형태, 곡 참여 작곡가, 피처링 가수 등 후속곡과 관련해 전 세계 팬들과 음반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싸이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강남스타일'과 최대한 비슷한 작업 형태의 신곡을 3월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싸이 측 관계자는 "'강남스타일' 처럼 싸이가 작사와 멜로디를 맡고, 유건형이 공동 작곡과 편곡을 담당했다"며 "여러 곡이 후보로 올라왔고, 최근 유건형이 미국에서 싸이를 만나 후속곡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싸이는 미국 진출과 함께 유니버설 뮤직과 음반 유통, 스쿠터 브라운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어 첫 월드 와이드 싱글이 될 후속곡에는 미국 현지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싸이 특유의 재기발랄한 가사와 안무, 멜로디 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또 한 번 한국 스태프에 의한 한국적인 음악을 발표하게 됐다. 특히 유건형은 2005년 '아버지'를 시작으로 '위아 더 원', 연예인, '라잇나우' 등 총 20곡을 공동 작업한 '싸이 스타일'을 가장 잘 살리는 작곡가로 불려져 있어 후속곡에 대한 기대가 크다.

후속곡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뮤직비디오의 안무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내부에는 '말춤'에 버금갈 퍼포먼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특별 안무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곳곳에서 공연하고 있는 싸이는 양현석 대표 등 지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뮤직비디오 콘셉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싸이는 다음달 브라질 카니발 축제에 참석한 뒤 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공연하기 위해 귀국한다. 싸이는 취임식에서 '강남스타일'을 부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스크린에 '북풍'이 몰려온다

오늘 개봉 '베를린' 필두 북한 소재 작품 줄이어
탈북자 등 다양한 캐릭터에 장르도 여러가지

얼어붙은 남북 관계는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지만 2013년 스크린에는 북한발 호재가 넘쳐날 전망이다.

과거 이념적으로 대치하는 상대로 북한을 그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탈북자, 간첩, 특수요원 등 다양한 캐릭터와 장르, 주제로 그들을 다루며 영화계의 새로운 흥행 코드로 부상했다. 올해는 류승완 감독의 '베를린'을 시작으로 여섯 편의 북한 소재 영화가 줄줄이 개봉된다.

29일 개봉하는 '베를린'이 북풍의 시작을 알린다. 독일 베를린의 불법 무기 거래 장소를 중심으로 국정원 요원 정진수(한석규), 북한의 비밀요원 표종성(하정우), 표종성을 제거하고 베를린을 장악하기 위해 파견된 동명수(류승범), 표종성의 아내 련정희(전지현)의 엇갈린 관계를 그린 영화다.

'베를린'은 기존의 영화들과 달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권력을 둘러싼 북한 내부의 혼란을 비교적 설득력 있는 설정으로 치밀하게 묘사했다. 특히 한석규는 '쉬리', '이중간첩'에 이후 세 번째 북한을 다룬 영화에 출연해 남다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강동원이 2010년 '의형제'에서 북한 첩보요원 역으로 주목받은것과 같이 올해도 꽃미남 배우들이 대거 북풍에 동참한다.

빅뱅의 탑은 '동창생'에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남한에 침투해 킬러로 활동하는 북한 요원 명훈 역을 맡아 24일 촬영을 끝냈다. 공유는 북한에서 버림받고 남한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살아가던 전직 북한 특수부대 출신 용병이 대기업 회장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채 쫓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용의자'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액션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6월 개봉 예정인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남파된 북한 간첩 원류환이 마을 사람들과 생활하며 변화하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다. 꽃미남 스타 김수현이 동네 바보인 척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을 연기한다.

이외에 김기덕 감독이 제작하고 김유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붉은 가족', '7급공무원'의 신태라 감독이 준비하는 '무인지대' 등도 관객과 만난다.

한 영화 관계자는 "북한 소재 작품은 극적이면서 현실에 가까운 판타지"라며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한 다양한 캐릭터를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뭐, 엄마귀신이 남자라고!

보뎃 공포영화 '마마'서 연기 화제

한겨울 미 극장가를 동시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마마'에서 실제 연기자가, 그것도 남자 배우가 엄마 귀신을 연기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뒤틀린 모성의 원혼을 열연한 주인공은 스페인 출신의 연기자 겸 행위예술가인 하비에르 보뎃(작은 사진)이다. 올해 서른여섯 살인 보뎃은 거인병으로 알려진 말단비대증에 걸려 키가 무려 2m에 이른다.

재능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굴과 기형에 가까운 긴 팔다리를 앞세워 스페인 무언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다 2007년부터 개봉되기 시작한 스페인산 지역산 호러물 '알 이 씨(R.E.C)' 1~3편으로 영화 팬들에게 처음 이름을 알렸다. 허우적대며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살육하는 좀비로 등장해 호러 매니아들을 사로잡았다.

안드레스 무시에티·바바라 무시에티 남매 감독이 2008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3분짜리 동영상에 출연한 게 '마마'에 합류한 계기였다. 그의 독이한 몸놀림을 눈여겨본 이들은 동영상을 바탕으로 장편 데뷔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CG)의 도움을 받는 대신 보뎃을 캐스팅하기로 마음먹었다.

거대한 고목처럼 사람들을 덮쳐 살해하지만, 애절한 기운이 배어나는 신체 언어로 동양적인 정서의 '슬픈 공포'를 선사하는 보뎃의 연기에 대해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은 "그의 몸놀림을 보고 있으면 미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마'의 진짜 주연"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준기자 when@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4 How old are you? 나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제공되었습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은 몇 살인가요?
저는 21살이에요.
스미스 씨는 아직 50대예요.
당신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제 언니가 맏이예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How old are you?
I'm twenty-one years old.
Mr. Smith is still in his fifties.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My sister is the oldes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John is not 60 yet, is he?
B: I don't think so. I'd say Mr. Smith is 아직도 in his fifties.

정답: still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old [are you / is she]?
2. I'm the [oldest / youngest].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likely	형 ~할 것 같은 (to) likelihood 명 가능성	It is likely to rain tonight. 오늘밤 비가 올 것 같다
qualified	형 자격을 갖춘 qualification 명 자격, 능력	qualified candidates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select	형 엄선된, 가려낸 selection 명 선택, 선발	recommend select books 엄선된 책들을 추천하다
technical	형 기술적인, 전문적인 technique 명 기술, 기법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다
unaware	형 인식하지 못하는 (of) unawareness 명 인식하지 못함	unaware of the mistake 실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upcoming	형 곧 있을, 다음의	register for the upcoming seminar 곧 있을 세미나에 등록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2. Describe a picture

대상의 위치 묘사하기

1.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 **on the upper lef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좌측 상단에
  On the upper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sign board hanging outside.
  사진의 좌측 상단에— 간판이 바깥에 걸려 있습니다.
- **on the lower lef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좌측 하단에
  On the lower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container box.
  [illegible]
- **on the upper righ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우측 상단에
  On the upper right side of the picture, some sign boards are written in English.
  [illegible]
- **on the lower righ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우측 하단에
  On the lower right side of the picture, a man is passing by.
  [illegible]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국가대표 출전 아직은 시기상조"

이시영 인천시청 복싱팀 입단… "그래도 배우 얼굴보호 신경 쓸 것"

아마추어 복서의 길을 걷고 있는 배우 이시영(사진)이 인천시청 복싱팀 입단으로 불거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입단식을 앞두고 있는 이시영은 28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복싱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입단한 것은 맞다"면서도 "인천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여부는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입단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한 뒤 "섣불리 출전 여부를 얘기하면 복싱에 앞로 매진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할 것 같다.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복싱 입문 당시 쏟아졌던 일부의 편견과 더불어 본업은 배우이므로 연기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3년 전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때 홍보용이라고 수군댔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복싱은 지극히 개인적인 스포츠이므로 그 같은 시선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배우로서의 책임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출연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복싱 때문에 얼굴을 다치는 등의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작품 활동 기간과 대회 시기가 겹치면 작품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장 올 10월과 12월에 각각 열릴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선발전의 출전 역시 이 기간 중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14일 새 영화 '남자사용설명서'의 개봉을 앞둔 이시영은 "기량 점검 차원이 아닌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동기를 나 자신에게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몇몇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했고, 다행히 우승까지 차지하는 등 그저 결과가 좋았을 뿐"이라며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운동인 복싱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향후 운동 계획을 공개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이든나인엔터테인먼트

상화 1000m 한국신 경신

'빙속 여제' 이상화(24·사진)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500m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상화는 28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대회 두 번째 날 500m 2차 레이스에서 36초99 만에 결승선을 통과, 티스에 오네마(네덜란드·37초06)와 왕베이싱(중국·37초23)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기세를 탄 그는 이어진 1000m 2차 레이스에서는 1분14초1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전날 자신이 작성한 한국 기록(1분14초39)을 다시 0.2초 앞당겼다.

/김민준기자

정몽규 축구협회장 선임

정몽규(51·사진)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뽑혔다.

정 회장은 2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24명 중 15표를 얻어 9표에 그친 허승표(67) 피플웍스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2016년까지 4년간 축구협회를 이끌어가는 그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축구인의 대통합을 이루고 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며 "조만간 축구인과 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패널을 모아 축구협회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손흥민(가운데)이 28일 열린 브레멘과의 '북독일 더비'에 선발 출전해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손흥민 1골1AS '펄펄'

베르더전 시즌 7호골 · 경기 최우수선수

'해결사' 손흥민(21·함부르크SV)이 1골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손흥민은 28일 열린 2012~2013 분데스리가 19라운드 베르더 브레멘과의 홈경기에 선발출전해 0-1로 뒤지던 전반 23분 페널티지역 왼쪽 구석에서 볼을 잡고 파고들다 상대 수비수 테오도르 게브르 셀라시에를 절묘하게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려 동점골을 뽑았다.

지난해 11월 마인츠전 결승골 이후 7경기 만에 나온 올 시즌 7호골이다. 후반 1분에는 데니스 아오고의 역전골까지 도우며 팀이 3-2로 승리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손흥민은 승리가 거의 굳혀진 후반 44분 팬들의 환호 속에 슬로보단 라이코비치와 교체됐다.

경기 후 독일 언론은 '북독일 더비' 라이벌전에서 맹활약한 손흥민을 극찬했다. 골닷컴 독일판은 "최고의 경기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 역시 양 팀 통틀어 최고인 2점(최고점 1점)을 줬다.

토르스텐 핑크 함부르크 감독은 "초반에는 브레멘에 더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손흥민이 멋진 단독 플레이로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를 더 잘 풀어나갔다"고 칭찬했다.

/김민준기자